

문화예술대학원 총동문회장 제 8대, 9대 이·취임식 성황리 진행

문화예술대학원의 총동문회장으로서 제 8대를 무난히 이끌어 온 정태수 회장, 윤재선 사무총장 그리고 김선용 총무의 뒤를 이을 이취임식을 지난 2019년 12월 10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동문 및 교수, 재학생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개최되었다.



< 8,9대 총동문회 이취임식 이후 단체 촬영 >

이·취임식에는 문화예술대학원 오병욱학장과 연극예술학부 이동훈교수, 실용음악전공 김정민교수, 뷰티아트케어전공 권기한교수 최정선(문예창작학과) 동문과 정진숙(미술치료) 동문 등과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제 8대 정태수회장은 이임사에서 새로 취임하는 이유원회장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대학원 동문회를 주문하였고 9대 총동문회 이유원 회장은 1,800여명의 졸업동문의 구심점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취임사에서 내년 1학기는 동문과 재학생과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모임 그리고 2학기는 동문회화 총학생회 공동으로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제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우리 동국대학교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8.9기회장, 오병욱원장>



<이유원회장 인사>



<오병욱원장 축사>

또한 후배를 위한 장학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후배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과 및 전공별 덕망있고 우수한 동문을 교문과 이사를 추천받아 1월 경 모임을 통해 확정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예술대학원 오병욱 원장은 축사를 통해 8대 회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후배들에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매학기 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주는 전통을 만들고 동문회의 기틀을 잡아준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새롭게 졸업하는 9대 이유원회장에게 축하의 말씀과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졸업동문과 교수님 그리고 재학생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 했다.



<실용음악 김린 축하>

<9대임원진 좌측부터 오병욱학장, 이유원 9대회장, 정영민사무총장, 임소영 총무, 홍정연간사>

이어진 재학생의 축하의 꽃 전달과 함께 실용음악전공 김린 학생이 축하(my destiny)를 불러주어 동문회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취임식 이후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8.9대간 동문, 그리고 교수님과 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9대 문화예술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연극예술전공의 정영민동문, 총무에는 불교미술의 임소영 총무, 조형예술경영 전공 홍정연님이 간사를 맡아 수고하기로 했다.

